

한우가 생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문 연



한우개발부장

한우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산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한우의 적응 능력입니다. 고대에는 신성시하는 제사의 희생물로서, 농경문화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없어서는 안될 동력원으로서 쟁기질하고 달구지를 끌면서 우리민족과 애환을 같이 했고, 기계문명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잃어 퇴출될 운명에서는 국민의 주요한 동물성 단백질인 쇠고기를 공급하는 역할로, 작금의 국제화의 틈바구니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차별화된 쇠고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우는 우리 농촌의 문화적 유산이라기 보다는 농가의 보물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면적인 수입개방에 생우마저 수입될 것이라는 향간의 소문으로 불안

에 떨고있는 30여만호의 한우사육농가들이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 한우를 시대적 요구에 알맞은 고급육을 생산 할 수 있는 한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10년 앞서 쇠고기시장을 개방해야만 했던 일본의 소도 그 내력을 찾아보면 한우가 그 조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일부지역에서는 조선우가 그 조상임을 뿔뿔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우의 후예들이 외국 육우와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쯤은 어느 정도의 정보망을 갖고있는 한우사육농가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1kg에 7~80만원 하는 고급육 생산의 원조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우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한우농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 시장의 국제화를 예측하지 못했던

1970년대에 일본화우의 유전자원이 미국에 흘러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던 미국의 육종학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일본의 흑모화우나 갈모화우를 대량생산하여 이들 유전자를 이용하여 고급육을 역수출하기 위한 연구가 모대학에서 수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화우같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유전인자를 갖는 미국내 육우 품종은 없다고 하였으며, 일본소와 기원이 같은 소를 많이 기르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일본의 고급육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한우의 고급육 생산 능력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두당 250여만원의 싸구려 소보다는 두당 500만원의 고급육 생산에 도전해야 합니다. 쇠고기시장개방의 벽두에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냐고 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바꾸어야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소뺨까지 수입하면서 경쟁국이 생산하는 똑같은 쇠고기를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다고 우긴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우라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전자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유전자원인 종자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우의 유전능력을 보존 개발하여 그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맛있는 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다시 한번 한우산업은 도약의 단계를 맞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농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시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새로운 기운이 한우사육농가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원년이 되십시오.

